

2026년 4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BSI)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시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시점 : 2026. 9월 기준
- 분석대상 : 122개 응답 업체

3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전망에 대한 응답 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 업체 수} - \text{부정적인 응답 업체 수})}{\text{전체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 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2026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 2026년 4분기 전망 BSI '86.1', 3분기 실적 BSI '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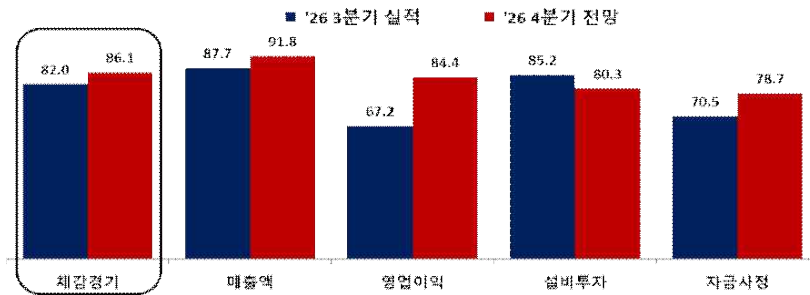
- 최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고금리 기조 등 대외 악재가 이어지며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가운데,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지역 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116.7)가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전망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조선·방산 분야의 수주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 철강금속(100.0)도 반덤핑 조치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이 줄고 조선 등 주요 수요 산업이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전망이 기준치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 항목별 전망 BSI : 매출액(91.8), 영업이익(84.4), 설비투자(80.3), 자금사정(78.7)
- 업종별 전망 BSI : 기타운송장비(116.7), 철강금속(100.0), 전기·전자(87.5), 기계·장비(68.6), 자동차·부품(61.1), 기타(114.3)
- 특성별 전망 BSI : 대·중견기업(90.6), 중소기업(84.4), 수출기업(83.3), 내수기업(87.0)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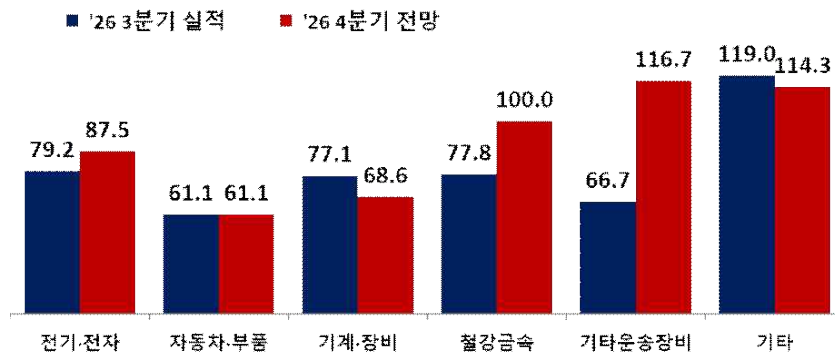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 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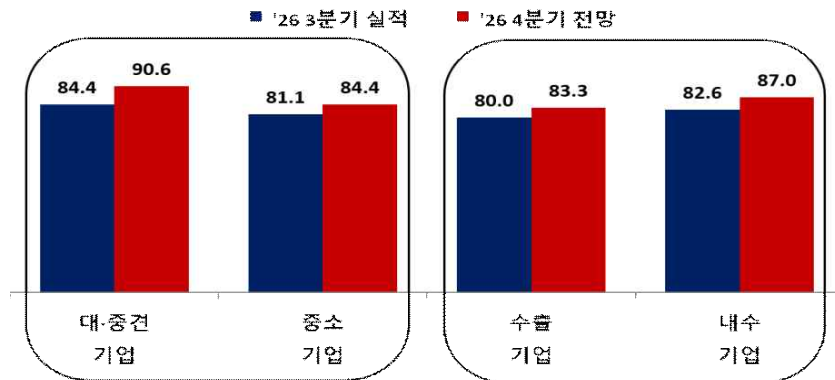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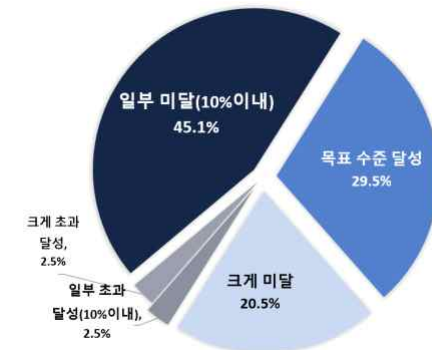
특성별 실적 및 전망 BSI



III 기업 경영환경 파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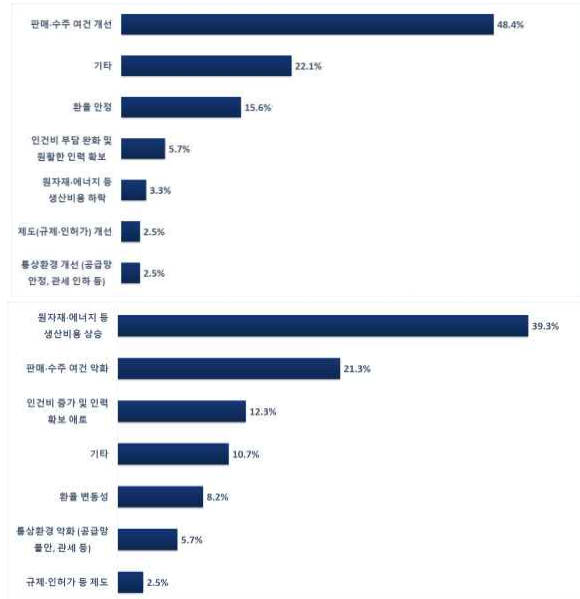
- 올해 실적(영업이익)의 연간 목표치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부 미달(10% 이내)' 45.1%, '크게 미달' 20.5%로 나타나 응답기업의 65.6%가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이어서 '목표 수준 달성'은 29.5%였으며, '일부 초과 달성(10% 이내)'과 '크게 초과 달성'은 각각 2.5%에 그침.

올해 실적(영업이익)의 연간 목표치 달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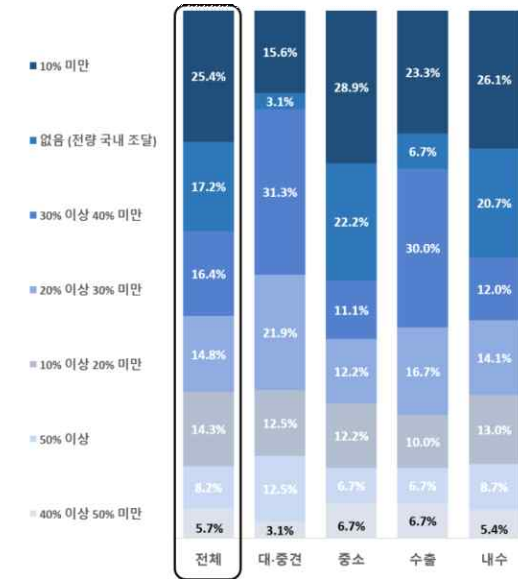
- 목표치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는 '판매·수주 여건 개선'(48.4%)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환율 안정'(15.6%), '기타'(13.1%),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인력 확보'(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39.3%)이 가장 높았으며, '판매·수주 여건 악화'(21.3%), '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12.3%), '환율 변동성'(8.2%), '통상환경 악화(공급망 불안, 관세 등)'(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목표치 달성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위), 애로사항(아래)



- 연간 매출액에서 수입 원자재·부품 등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수입의존도)을 묻는 질문에 '10% 미만'이 25.4%로 가장 많았음.
- 이어서 '없음(전량 국내 조달)'(17.2%), '30% 이상 40% 미만'(16.4%), '20% 이상 30% 미만'(14.8%), '10% 이상 20% 미만'(14.3%), '50% 이상'(8.2%), '40% 이상 50% 미만'(5.7%) 순으로 나타나, 수입의존도가 30% 이상은 응답기업 10곳 중 3곳에 달함.
-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의 경우 '30% 이상 40% 미만'(31.3%)이 가장 많았고 수입의존도 30% 이상 기업이 46.9%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0% 미만'(28.9%)과 '없음'(22.2%)이 절반 이상(51.1%)을 차지해 대·중견기업의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은 '30% 이상 40% 미만'(30.0%)이 가장 많아 30% 이상 기업이 43.3%에 달한 반면, 내수기업은 '10% 미만'(26.1%), '없음'(20.7%) 순으로 나타남.

수입의존도(연간 매출액에서 수입 원자재·부품 등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역 투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27.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어서 '지역 소재 기업 대상 규제 완화(노동·환경 규제 등)'(23.8%),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전력·용수 등)'(16.4%), '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법인세 감면 등)'(15.6%), '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지원(스마트공장 등)'(6.6%), '위기산업·지역 지원 확대'(4.9%) 순으로 나타나, 재정·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전체의 과반(51.7%)을 차지함
-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이 '규제 완화'(25.0%)와 '세제혜택 강화'(21.9%)를 우선적으로 꼽은 반면, 중소기업은 '보조금·정책금융 확대'(32.2%)를 가장 많이 꼽아, 대·중견기업은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재정·금융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형태별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나(수출 30.0%, 내수 27.2%), 수출기업은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강화'(각 23.3%)를, 내수기업은 '규제 완화'(23.9%)와 '인프라 확충'(17.4%)을 그다음 순위로 꼽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

